인문논총 제76권 제4호 (2019.11.30), pp. 435~450
[DOI] https://doi.org/10.17326/jhsnu.76.4.201911.435

‘최인훈’이라는 바다를 건너는 항해자의 기록들

[서평] 방민호 외(2018),『최인훈 — 오디세우스의 항해』, 에피파니, 1007쪽.

배 지 연*

> 20세기를 이제 몇 해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도 20세기의 두 얼굴은 마치 우리를 유혹하는 악마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우리를 착란과 희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놓은 듯싶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대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살다 보니 나에게 가장 손에 익은 방법은 ‘문학’이라는 돛대에 자신의 몸을 묶는 일이 이 소용돌이를 벗어나는 적어도 직시하는 길이었다.『화두』는 그러한 항해자의 기록이다.
>
> — 최인훈, 1994년 제6회 이산문학상 수상 소감 중에서

1. 최인훈, 20세기 오디세우스

최인훈은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항해보고서’, ‘공방일지’, ‘작업일지’ ‘실험보고서’라고 비유해왔다. 당대 현실에 적합한 문학적 방식을 실험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사업단 연구교수

www.kci.go.kr

하고, 또 그것을 분석하고 설명한 기록들이 자신의 '글쓰기'라는 것이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화두』다. 최인훈은 「20세기의 개인」이라는 제목의 소감문에서, 현실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문학'이라는 돛대에 몸을 묶고 그것을 돌파했으며 그러한 문학적 행로를 기록한 것이 『화두』라고 밝혔다. 작가로서의 자신의 행로를 기록한 『화두』는 돛대에 몸을 묶은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섬을 지나 자신의 집으로 귀환하는 『오디세이아』와 겹쳐지고 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북쪽 국경마을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냈고, 해방 후 원산으로 이주하여 트라우마를 형성할 사건들을 겪었으며, 한국전쟁시기에 월남한 최인훈. 그는 평생 자신을 (피)난민으로 규정하면서 글쓰기를 통해 '정식화되지 못한 응어리'를 '정식화하는 작업'을 수행해왔다. 『화두』에서 한국과 그를 둘러싼 세계사적 소용돌이를 통과하는 자신의 이야기 혹은 한국근현대사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지만, 이는 『화두』에 국한되지 않는다. 등단 이후 최인훈의 문학작품들은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요동치는 한국의 근대사를 통과하는 개인 — '현', '라울', '이명준', '독고준', '구보', '오토메나크'들의 이야기다. 최인훈 문학을 모두 겹쳐 쓰고 있는 『화두』는 그들의 기록이자, 한국의 근대를 통과한 어떤 항해자의 기록인 것이다.

최인훈은 시, 소설, 희곡, 평론 등 거의 모든 문학 장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글쓰기를 시도해왔다. 최인훈 소설이 지닌 새로움은 단순한 형식실험의 차원이 아니라 당대 현실에 적합한 문학적 형식을 지속적으로 모색한 결과이다. 무엇보다도 최인훈에게 문학이란 당대 현실 풍속과의 교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따라서 현실 풍속과 문학적 방법 사이의 결합 관계를 '부단한 점검으로 조율해야 하는 예술 장르'이다.[1] 이처럼

1) 최인훈(2009), 「신문학의 기조」, 『문학과 이데올로기』, 문학과지성사, p. 182. 『문학과 이데올로기』에 실린 「신문학의 기조」는 『사상계』(1968.12.)에 「계몽 토속 참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글을 재수록한 것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정영훈(2017),

www.kci.go.kr

풍속과 방법의 결합관계를 부단히 점검하고 조율한다는 최인훈의 언술은 현실과 문학의 문제, 말하자면 당대 현실을 담아낼 다양한 글쓰기 방식에 대한 작가의 고민과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최인훈에게 “문학작품을 쓴다는 것”은 “작가의 의식과 언어의 싸움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비평하는 것”[2]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최인훈의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당대 사회에 대한 기록을 마주하는 것이다.

다만, 최인훈의 기록들은 명확한 방식으로 표기되지 않고 ‘이중삼중의 환산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우로’를 통과하고 있다. 최인훈은 인간의 사회적 존재양식이 확장되고 분화되는 현대의 상황에서 “삶의 전모를 관측할 수 있는 지점에 닿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우로를 거쳐야”하며, 이 우로의 과정 없이는 현대인에게 문학은 구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3] 따라서 최인훈 문학의 독자들은 그러한 환산과정과 우로를 되짚어가며 그 기록들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야 한다. 독자의 최전선에 선 연구자들이야말로 최인훈 문학에 가득 담긴 수많은 우회적 장치들을 분석하고 탐색함으로써 20세기 한국사회를 탐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근대’를 사유한 문제적 개인 최인훈의 문학은 그 연구자들에게 또 하나의 바다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 『최인훈 — 오디세우스의 항해』는 최인훈이라는 바다를 건너는 항해자들의 기록이다.

「최인훈 전집 『문학과 이데올로기』의 제 문제」, 『국제어문』 제74집, 국제어문학회, pp. 405-436을 참조할 것.

2) 최인훈(2009), 「문학과 현실」, 『문학과 이데올로기』, 문학과지성사, p. 37.

3) 최인훈(2009), 「소설을 찾아서」, 『문학과 이데올로기』, 문학과지성사, p. 256. 「소설을 찾아서」는 1970년 12일에 발간한 『문학을 찾아서』(1970, 현암사)에 실렸고, 이후 최인훈 전집 『문학과 이데올로기』로 묶였다. 『문학과 이데올로기』에 실린 텍스트의 서지 사항을 정리한 정영훈에 따르면, 「소설을 찾아서」는 「작가의 역사 수용과 현실 설정」이라는 제목으로 1969년 5월 『아세아』에 발표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정영훈(2017), 위 논문, p. 412 참조.

www.kci.go.kr

2. ‘최인훈’을 항해하는 23가지 방법들

이 책의 책임편집자인 방민호 교수는 병상에서 만난 최인훈 선생의 언급, “한반도의 ‘근대’라는 것에 관한 ‘오디세우스의 항해’ 이야기”(p. 7)를 그의 ‘문학적 유언’으로 판단하고, 최인훈 문학 연구의 성과를 모아 “최인훈 — 오디세우스의 항해”라는 멋진 제목을 붙였다. 아울러 이 책을 통해 “한국적인 동시에 세계사적인 ‘근현대’의 문제”(p. 8)로서 최인훈 문학을 사유하고, 그를 통해 “영혼의 지도”, “이 시대와 현실의 지형도”를 읽어내고자 한다.

『최인훈 — 오디세우스의 항해』는 다음과 같은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I. 최인훈 연보
PART II. 총론 — 시대를 측량하는 문학
PART III. 소설론 1부 — 머무르지 않는 사유, 방법의 탐색
PART IV. 소설론 2부 — 탐독과 의미의 분광
PART V. 희곡 및 비교문학론 — 경계를 넘나드는 가능성들

PART I에서 정리되는 최인훈 연보는 작성자(전소영)의 꼼꼼한 정리와 해설이 돋보인다. 이 책의 최인훈 연보는 개별 작품의 발표 시기를 다시 확인하여 기존의 최인훈 연보를 수정, 보완하는 한편, 『화두』를 비롯한 최인훈의 소설과 평론, 인터뷰와 기사 등을 활용하여 최인훈의 이력을 상술하고 있다. 많은 공력이 들었을 이 연보를 통해 최인훈 문학 연구자들의 수고가 덜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이 책의 출간 즈음에 최인훈의 출생년도가 1934년으로 밝혀졌는데, 이로써 그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최인훈의 유년기 및 학창시절의 궤적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게 되었다. 작가의 생애와 이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문학연구의 기반이 된다

www.kci.go.kr

는 사실은 분명하며, 이런 점에서 최인훈의 연보를 이 책의 첫머리에 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몇몇 부분에서 연보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연보 상의 내용 중에서 서로 다르게 서술된 부분이 발견된다. 예컨대, 최인훈의 전역 시기를 1963년(p. 27)으로 상술하는 한편, 1961년 “단행본『광장』이 나오고 (4월로 추정) 육군 중위로 제대한 작가는 복학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p. 31)으로 서술되고 있다. 31쪽 이후의 내용(“1961년 전역 후에 창작활동에 박차를 가해 일제강점기 소설가 이상을 상기시키는 「수」를 기점으로 많은 문제작을 창작했다”)으로 볼 때, 이러한 균열은 단순한 오기(1963년을 1961년으로 잘못 표기된 것)로 보이지 않는다. 김종회 선생이 작성한 연보와 최근 발표된 신성환의 연보(2018. 12.) 등에는 대체로 최인훈의 병역기간을 1957~1963년(총 7년)으로 보고 있는데, 전소영이 정리한 이 연보에는 그 기간이 달라서 혼선을 빚게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군대생활이야말로 참다운 의미의 ‘대학’”이라고 언급했던 최인훈에게 이 시기는 「광장」 등의 많은 소설을 발표한 중요한 시간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4)]

이밖에도 서지사항과 관련해서 달리 표기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수

4) 필자 또한 2014년 2월부터 2016년 8월 사이에 수차례 최인훈 선생님을 직접 뵙고 면담하였다. 자택에서 처음 뵈었던 2014년 2월, 최인훈 선생님은 매우 정정하신 모습으로 다섯 시간(오후 2~7시) 남짓 자신의 문학과 생애를 이야기하셨다. 이때 최인훈 선생님은 1960년 4・19의 시대적 분위기에서 집필한 「광장」을 그해 여름 자신이 파견 근무했던 대구에서 탈고했다고 언급하셨다. 최인훈 선생님은 1960년 당시 대구 병참기지창, 그 근방에 있던 간호학교와 육군병원 등과 자신의 하숙집 위치까지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셨는데, 그동안 잊고 지냈던 「광장」의 집필과정을 다시 기억해냈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필자는 최인훈 선생님이 지목한 대구 제2군사령부의 내력과 선생님의 통역장교 이력을 중심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작가의 언급이 있었더라도 작가의 이력에 대한 정확한 고증 작업이 필요하며, 이 부분은 앞으로 최인훈 연구에서 유의미한 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www.kci.go.kr

정이 요청된다. 최인훈이 1960년대에 발표한 평론들을 모은 평론집『문학을 찾아서』의 간행시기가 각각 다르게 표기(1970, p. 35; 1971, p. 45)되었으며, 일부 단편작품(「귀성」,「공명」 등)의 연재 및 발표일자가 오기되었으며,「전사 연구」 등 일부 작품에 관한 서지사항(p. 33)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한 작가의 연보를 집필하는 작업은 매우 까다롭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이 책의 서두를 구성하는 최인훈 연보 또한 그러한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적시한 부분은 다른 기회를 통해 수정,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

총론에 해당하는 PART II에는 정호웅, 방민호, 김종욱, 연남경의 논의를 통해 "시대를 측량"하는 최인훈 문학의 특성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정호웅은「최인훈의『화두』와 일제강점기 한국 문학」에서「낙동강」과『화두』의 관계를 분석하면서『화두』의 글쓰기 전략을 재구하였다. 그는『화두』에 나타나는 정치권력 비판의 맥락을 통해『화두』를 정치소설로 규정하고, 주인공의 글쓰기 전략이 정치권력의 억압에 맞서는 '저항형식'의 창출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론은『화두』가 조명희의「낙동강」을 '절대적 매개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도출되고 있으며, 조명희를 매개로 확장되는 일제강점기 문학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정호웅은『화두』에 나타난 주인공의 독서체험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를 요청함으로써 최인훈 문학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한국문학사 및 독서문화사에 대한 맥락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 책의 책임 편집자이기도 한 방민호는 월남문학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최인훈 문학을 다루고 있다.「월남문학의 세 유형 — 선우휘, 이호철, 최인훈의 소설을 중심으로」에서 전후 작가로 불리는 이들 세 작가들을 월남문학과 '고향 상실'의 문제로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학인들의 월남은 이데올로기 이전에 장소 상실이자, 장소성을 회복을 위한

www.kci.go.kr

‘형언할 수 없는 욕망’을 야기하는 원천적 경험”(p. 98)이다. 방민호는 이 논의에서 상실된 과거의 고향보다 더 나은 미지의 고향을 지향하는 최인훈의 경우를 『광장』, 『서유기』, 『화두』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방민호의 논지는 그가 모색하고 있는 ‘해방 후 8년의 문학사’ 구상과 연결된다.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맥락에서 한국 현대문학사를 파악할 때 분명 이 시기 문학사는 변별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방민호의 논의는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되며, 이 과정에서 최인훈 문학의 풍성한 의미망과 맥락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태풍』을 다룬 김종욱의 「무국적자, 국민, 세계시민」도 전후 작가로 분류되는 선우휘와 최인훈을 비교하고 있다. 이 논의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다룬 「콰이강의 다리」에서 재현된 포로감시원의 균질성에서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난민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데, “조선인 포로감시원의 굴곡진 삶 속에서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웠던 일본 제국이 국민국가로 재편되는 동아시아의 역사가 놓여있다.”(p. 169)는 김종욱의 지적은 매우 적확하다. 그는 최인훈의 『태풍』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가능성을 묻고 있으며, 나아가 “근대 국민국가의 질서 바깥으로 떨어져 나와 스스로 무국적자, 곧 난민이 되는 것”(p. 188)으로서 파악하였다. 특히 한국현대문학사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재현이 소극적이었던 현상에 대해 “피식민자이면서도 전쟁 수행 과정에서 제국주의 전쟁에 공모했던 죄의식을 은폐하거나 망각하고, 이 과정에서 파생된 책임에서도 벗어나려는 시도”(p. 191)라고 본 김종욱의 결론은 이 전쟁에 동원된 일본군‘위안부’의 문제를 은폐하고 억압해왔던 ‘문제적 현상’에도 해당된다. 식민지적 무의식의 민낯을 드러냈던 2019년 현재, 이 ‘잊혀진 전쟁’의 ‘책임의 윤리’를 요청한 김종욱의 논의는 더욱 막중하고 긴요한 제안으로 다가온다.

마지막으로, 「최인훈 문학의 미학적 정치성」을 다룬 연남경의 논의는 2008년 당시 공론장의 ‘시와 정치’ 논쟁을 매개로 최인훈 문학의 정치성

www.kci.go.kr

을 재구하고 있다. 랑시에르에 의해 대체된 '정치'('감각적인 것의 재분배') 개념을 우리 문학사에 적용할 경우, 최인훈 문학의 정치성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새롭게 기술되어야 한다. 연남경은 2008년의 '시와 정치' 논쟁이 김수영 시론에 대한 1960~70년대 문단을 환기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당시 최인훈 문학을 대상으로 한 리얼리즘 논쟁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창작과비평>에 의해 개인주의적, 관념적 작가로 폄하"되었던 최인훈이 랑시에르와 바디우의 "미학적 정치 개념에 의하면 '패배주의'로 오인됐던 점이 오히려 문학의 정치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재해석"(p. 221)된다. 이와 같이 총론으로 살펴본 논의들은 '한국적 근대'를 문학적 실험으로 돌파함으로써 '시대를 측량'하고자 했던 최인훈 문학 전반을 재구하였다. 이들 총론을 통해 이후에 제시될 다양한 각론들이 그 빛을 더하게 될 것이다.

PART III과 IV는 소설론으로서 1,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은 작품의 발표 시기, 즉 197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PART III (소설론 1부)은 등단시기인 1959년에서 1970년 사이에 발표된 소설을 대상으로 한다. 1959년에 '등단 완료작'으로 발표된 「라울전」에서 최인훈의 소설의 원형을 찾고 있는 「라울로부터 독고준으로, 최인훈 문학의 한 기원」(전소영)를 비롯하여, 초기 소설 「가면고」를 다룬 「'얼굴/가면'에 가려진 '몸/예술'의 가능성」(허선애), 「광장」 서문들의 변천사를 분석한 「20대의 혁명에서 70대의 배려까지」(정기인), 『회색인』에 드러난 자기정체성의 문제를 다룬 「독고준의 이름, 자기서사의 출발」(이경림), 『서유기』를 읽는 새로운 독법을 제시한 「망명자의 정치 감각과 피난의 기억」(서세림)은 이 시기에 발표된 최인훈의 개별 소설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은 논의들이다.

한편, 최인훈 소설 연구에서 특정 주제들 — 여성, 연작 형식, 기억과 반복의 문제를 다룬 논의들도 함께 실려 있다. 최인훈의 단편소설들에

www.kci.go.kr

나타난 여성 문제에 천착한 「최인훈 단편소설에 나타난 여성 형상화 양상」(최정아), 「크리스마스 캐럴」과 「총독의 소리」 등 다수의 연작소설을 대상으로 한 「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연작’의 의미」(노태훈), 1960년대 발표된 최인훈의 문제적 소설들 「구운몽」, 「회색의 의자」, 『서유기』 등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을 분석한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기억’과 ‘반복’의 의미에 대한 연구」(남은혜)는 1960년대 최인훈 소설을 관련 주제별로 접근하여 논구하고 있다.

이들의 논의는 최인훈 소설 연구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한편, 이러한 다채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최인훈 소설에 담긴 다층적 사유와 문학적 모색들을 살필 수 있다. 예컨대, 『회색인』에 나타난 독고준의 자기정립 과정을 분석한 이경림의 논의는 매개적 인물을 통해 자신을 정위하는 최인훈 소설 주인공들의 중층적 사유 틀을 적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광장』 서문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면서 작가의식의 변모를 논구한 정기인의 논의도 그렇다. 50여 년 간 7번의 개작을 통해 새로 쓰인 『광장』의 서문과 본문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일련의 개작과정에서 변모된 작가의식이 서문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본문과 서문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과 함께, 7번의 개작을 통해 “최인훈의 『광장』들이 50여 년의 세월 속에서, 한국사회와 함께 변화하며 운동하고 있었음”(p. 333)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설론 1부에 해당하는 PART III에서는 1970년 이전 최인훈의 소설에서 다층적인 사유와 방법적 탐색의 실마리를 탐사하고 있다.

한편, PART IV (소설론 2)는 1970년 이후 소설들을 다루고 있는데, 1970년에 가장 먼저 발표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비롯하여, 『광장』의 개작 문제, 일제강점기 식민체험과 관련된 논의, 그리고 『화두』에 관한 논의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970년대 구보 잇기의 문학사적 맥락」(정영훈)은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 일종의 ‘문학적 자서전’의

www.kci.go.kr

형식을 통해 박태원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심리적 자기동일성’을 찾을 뿐 아니라 단절된 문학사의 복원을 시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1970년대적 시대상황 속에서 작가 박태원의 의미를 찾아내는 한편,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 “구보를 주어로 하는 다양한 글쓰기”(p. 536)의 반복과 확장 가능성을 가장 잘 입증한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동일 소설을 다룬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구」(이민영)는 구보의 서명을 통해 ‘후진국민’의 정체성을 분석하고 있다. “식민사회의 구보를 탈식민사회의 구보로 전유함으로써 냉전기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식민사회의 모습을 재조명”(561면)한다는 점에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의의를 찾고 있다.

「‘우리 말’로 ‘사상’(思想)하기」(장문석)는 1976년 『광장』의 개작에서 일본어로 번역된 서구의 개념어를 일상어에 해당하는 ‘우리 말’로 고쳤다는 사실에 착목하며, 이 작업이 “한국 지식사와 표상공간의 재구성”을 요청하고 있음을 재구했다. 『광장』의 개작이 “‘우리 말’로 ‘생각’하는 단계를 꿈꾸었지만, 결국 ‘우리 말’로 ‘사상’(思想)하는 곳에서”(p. 644) 멈추고 있다고 파악한 이 논의는, 다케우치 요시미와 최인훈의 글쓰기를 비교하며 서구어의 번역과정에 나타난 동아시아적 사유체계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최인훈 『광장』의 신화적 모티프에 대한 연구」(홍주영)는 『광장』을 ‘이행 텍스트’로서 파악하면서, ‘신내림’ 등의 다양한 신화 모티프로 분석하였다. 1976년 개작을 통해 『광장』은 “이데올로기적 표면 서사의 이면에 기호계열적 층위가 활성화”(p. 691)됨으로써 밀실과 광장의 이항대립을 넘어설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 논의들은 앞서 정기인의 논의와 더불어 『광장』의 개작과 관련한 다양한 관점을 조망하고 있으며, 50여 년 간의 개작 과정에 담긴 현실적 맥락과 복잡한 사유들에 천착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 식민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총독의 소리」 연작과 『태풍』을 다룬 논의가 있다. 「부활과 혁명의 문학으로서 ‘시의 힘’」(이행미)

www.kci.go.kr

은 최인훈 문학의 본령이 ‘시’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총독의 소리」 연작에 나타난 ‘시’로서의 문학의 본질을 해명하고 있다. 총독의 발화와 시인의 독백에 나타난 ‘시’가 가능한 세계를 창조하고 상상력을 매개한 보편적 세계를 재현하는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마지막 연작에서의 시인의 독백이 재현과 문학에 대한 최인훈의 인식, 즉 “주어진 세계와의 ‘차이’에 방점을 둔 재현”(p. 568)에 긍정하는 지점을 보여주며, 이것이 『화두』와 「바다의 편지」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태풍』의 경로 혹은 두 개의 물음」(공강일)은 로이스 타이슨의 독법 — ‘결 따라 읽기’, ‘결 거슬러 읽기’를 태풍 읽기에 적용하여 주인공의 엇갈린 행동들(지배이데올로기의 전유와 폐기, 혹은 자기성찰 등)을 설명하였다. 이들 논의는 한국사회에 작동하는 식민성의 문제를 기반으로 한 두 소설을 새로운 방식으로 독해함으로써 보다 다층적인 의미망들을 포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두』에 나타난 애도와 우울증, 그리고 정치적 잉여」(구재진)는 『화두』를 “망명자의 서사이자 기억의 서사”(p. 749)로 파악하고, ‘기억학’의 방법론을 통해 기억의 문학을 완성했다고 평가하였다. 그에 따르면, 조명희의 죽음으로 대표되는 우울증적 애도는 사회주의 체제/이념의 몰락에 대한 우울증적 서사가 구체화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억의 정치성은 탈각되어 잉여로 남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화두』는 “미래로 나아가는 연금술”이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는 생존술“(p. 749)인 것이다. 『화두』가 지닌 다양한 가능성과 개방성에 대한 논의가 집적된 가운데, 구재진의 논의는 『화두』에 드러난 정치성의 탈각에 대한 문제제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화두』에 이르기까지 1970년 이후에 발표된 최인훈 소설을 다룬 PART IV에서는 새로운 독법과 해석을 통해 그의 소설에 드러난 의미들의 스펙트럼을 조망하고 있다.

www.kci.go.kr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PART V는 희곡 및 비교문학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인훈의 『광장』(1961)과 일본 작가 홋타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1951)을 비교 연구한 『선을 못 넘은 '자발적 미수자'와 선을 넘은 '임의의 인물'」(김진규), 『광장』과 러시아 문학 『고요한 돈강』의 주인공을 대비한 「『광장』의 이명준과 『고요한 돈강』의 그리고리 멜레호프」(허련화), 동양고전 『서유기』의 상호텍스트성을 논의한 「세덕당(世德堂) 100회본 『서유기』(西遊記)를 패러디한 최인훈의 『서유기』」(Barbara Wall)는 최인훈 소설을 대상으로 한 비교문학론에 해당한다. 『광장』과 『서유기』 등 최인훈의 주요작품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들은 세계문학으로서 최인훈 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연극과의 동행, '최인훈 희곡'의 형성」(송아름)과 「무대 위 심청의 몸과 신식민지의 성정치」(조서연)는 최인훈의 희곡론이다. 송아름의 논의는 1960년대 후반에 발표된 「온달」 및 「열반의 배」와 1970년에 발표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의 분석을 통해 최인훈의 '소설에서 희곡으로의 이행과정'을 추적한 것으로서, 보편적이면서도 한국적 심성을 표출한 '최인훈 희곡'의 세계가 고전 패러디 소설에서 찾을 수 있었던 '대항기억'으로서의 면면들을 제거하면서 구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조서연의 논의는 『심청전』을 패러디한 「달아 달아 밝은 달아」의 분석을 통해 최인훈 희곡의 정치성을 논구한 것이다. '창녀 심청'의 등장을 1970년대 성행되던 기생관광의 현실적 맥락에서 파악할 때, 이 작품에 나타나는 여성의 성노동은 1970년대 신식민적 상황에 대한 재현으로 판단된다. 1992년 개작에서 임진왜란과 이순신의 장면을 배치함으로써 "의미심장한 로컬리티 및 신식민지적 국제정치의 구도"(p. 904)를 부여하였다는 결론은 적확하며, 한국적 심성이 주로 부각되던 최인훈 희곡에서 남다른 정치성을 포착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PART V는 최인훈의 희곡론과 비교문학론으로 구성함으로써 최인훈 문학연구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최인훈은 당대의

www.kci.go.kr

문학적 관습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그 경계를 넘나들었다. PART V의 논의는 그러한 최인훈의 행보를 따르면서, 장르와 경계를 넘어서는 연구들의 가능성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3. 해도(海圖)들: 항해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이 글이 다루고 있는 『최인훈 — 오디세우스의 항해』는 최인훈 문학을 다각도로 다룬 23편의 논문을 묶은 1,0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책이다. 분량과 내용, 그리고 논의의 밀도에 있어서 이 책을 대상으로 서평을 쓰는 일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본격적인 서평이라기보다는 게재된 23개의 논의를 소략하게 다루는 정도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 이 책은 최인훈 문학 전반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총론들, 심층 연구의 스펙트럼들을 제시한 소설론과 희곡론, 그리고 비교문학론까지 최인훈 문학연구의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개별 논문들은 최인훈 문학연구 초기에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던 연구주제들, 예컨대 리얼리티(리얼리즘과 재현)와 형식과 기법 등의 문제틀을 넘어서 다양한 논제들을 세밀하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였고, 무엇보다도 20세기 근대를 살아온 최인훈 문학을 ‘시대와 현실의 지형도’로 삼고 있다. 이들의 논의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최인훈 문학 연구자들에게 의미 있는 안내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책을 ‘최인훈 문학연구라는 거대한 바다’를 건너기 위한 ‘해도’(海圖)로서 평가할 때,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다. 먼저, 텍스트와 서지사항에 대한 정밀한 고증작업과 그에 관한 논의들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영훈(2017)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다수의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최인훈 전집』에는 수정,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전집에 수록된 텍스트의 오류가 수정되지 않고 서지사항이 보완되

www.kci.go.kr

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들이 연구의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5] 이러한 맥락에서 최인훈 문학 텍스트와 서지사항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며, 앞으로 그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텍스트의 서지사항은 작가의 이력과 맞물려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최인훈 연보의 문제들도 작가론의 관점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문학텍스트는 그것이 생산되는 문학장과 긴밀하게 연관되는데, 특히 최인훈 문학은 당대 문단에서 제기되는 비평담론과 문학적 관습에 저항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 및 발전해왔다. 최인훈 문학의 독특함은 그의 텍스트 자체뿐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진 물적 토대 및 다양한 맥락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당대 문학장의 다양한 맥락 가운데 작가 최인훈과 그의 문학텍스트가 놓여있는 위치(궤적)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최인훈 텍스트를 보다 풍부하게 해석할 여지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문학사의 비평사적 지형에 대한 조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6]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 책은 최인훈이라는 바다를 건너는 항해자들의 기록이다. 최인훈은 자신의 글에서 '말의 바다'를 건너는 시인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실물의 지구(地球)가 아니라 관념 속에 존재하는 '말의 지구'를 '바다'에 비유하면서, 시인은 각자의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했다.

> "'말의 배' 말입니다. 어떤 '말의 배'를 타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지요. 가장 넓고, 가장 튼튼한 '말의 배'를 만드는 것." (중략-인용자)
> "'말의 배'는 말의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그 배를 타려면 말의 바

5) 정영훈(2017), 앞의 논문 참조. 정영훈의 논의는 최인훈의 평문을 다룬 『문학과 이데올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텍스트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6) 이에 대한 논의는 배지연(2018), 「1960~70년대 문학장과 최인훈 — 1970년 전후 『사상계』 문학비평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56, 한국현대문학회, pp. 43-90 참조.

www.kci.go.kr

다를 항해하는 기술이 있어야죠.” / “멀미가 나는군요.” / “멀미에 견뎌야죠. 말의 바다를 두려워하고 땅에 집착하면 우린 집니다. 말멀미에 센 사람들이 늘 이깁니다. 말의 바다에서 말의 폭풍을 싸우면서 말의 항구로 찾아가는 말의 배.” / “알 만합니다.” / “땅의 확실함만큼 말의 확실함을 아는 동안에는 멀미가 안 나지요. 자기가 탄 말의 배는 늘 자기가 함장입니다. 한눈을 팔면 말의 배는 난파하지요. 그리고 ” / “그리고 ?” / “그리고 남의 배에 구조 받아서 잔심부름이나 하게 되면 배 없는 선장, 배 없는 배꾼이지요.”[7]

그는 말한다. 말의 바다를 두려워하지 말 것, 그리고 한 눈 팔지 말 것. 말의 바다에서 난파되어 자신의 배를 잃어버리게 되면 주체적인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의 바다를 건너는 말의 배’는 20세기 오디세우스 최인훈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끝없는 언어실험, 문학적 방법의 모색은 “말멀미에 이기기 위한”[8] 최인훈의 처절한 고투였을 것이다. 한편, ‘말의 바다를 건너는 말의 배’는 문학을 대하는 최인훈의 자세를 보여주는 동시에, 최인훈 문학 연구자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테면, ‘최인훈의 바다를 건너는 연구자의 배’ 또한 필요하며, 연구자들 역시 자신의 배를 운항하기 위해 말멀미를 이겨내고 한 눈 팔지 않아야 하리라.

필자는 이 책『최인훈 — 오디세우스의 항해』를 통해 최인훈 문학과 20세기 한국사회를 조망했으며, 이 과정에서 23인의 항해자와 더불어 최인훈의 바다를 건너는 수많은 항해자 — 동학(同學)들의 존재를 재확인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최인훈이라는 거친 바다를 먼저 건너간 선배들, 지금도 그 바다의 수심과 해저 지형을 살피며 고군분투하는 동

7) 최인훈(2009),「말에 대하여」,『문학과 이데올로기』, 문학과지성사, p. 174(인용문의 원작은 1970년 12월에『월간문학』에 발표된「낙타섬에서」이다).

8) 김주연(2009),「말멀미에 이기기 위하여 — 최인훈 평론에 대하여」,『문학과 이데올로기』, 문학과지성사, p. 516.

www.kci.go.kr

학들과 함께 ‘최인훈이라는 바다’를 건너는 흐뭇하고 아찔한 상상을 떨칠 수가 없다. 하여 앞서 인용한 최인훈의 글을 빌어 이 글을 맺고자 한다.

> “ㄱㅜㅣㅅㅓㄴㅇㅢㅎㅏㅇㄹㅗㅇㅏㄴㅈㅓㄴㅇㅡㄹㅂㅣㄹㅁㄱㅜㅣㅅㅓㄴㅇㅢㅎㅏㅇㄹㅗㅇㅏㄴㅈㅓㄴㅇㅡㄹㅂㅣㄹㅁ”[9]

최인훈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그들, 우리 모두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빈다.

9) 최인훈(2009),「말에 대하여」,『문학과 이데올로기』, 문학과지성사, p. 180.

www.kci.go.kr